

# 목포~부산 KTX건설 '부상'

## 오거돈 부산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추진 의지

### 목포-부산 1시간 안팎 획기적 SOC구축 반응

목포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KTX) 건설안이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광주·전남지역 관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경부 라인에서 서해안 축으로 또 남해안 축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는 만큼 남해안권의 광역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목포~부산 KTX건설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남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포~부산 KTX 건설 추진 의지와 함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최근 광주 전남 CEO포럼에서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남도와 부산시가 공

동으로 목포~부산 KTX 건설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구상이 성사되면 목포와 부산을 1시간 안팎으로 오갈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SOC구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목포~부산 KTX 건설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나 시기 등에서 당장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지만, 전철화나 복선화가 부산쪽에 비해 저조한 전남의 입장에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남해안 철도는 목포 임성리~부산까지 총 연장 336km로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 동남권 구간(208.5km)은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진주에서 광양까지도 복선화를 개통하고 전철화사업은 현재 설계중이다.

하지만 보성에서 목포까지 서남권 구간 82.5km 전철화나 복선화는 고사하고 단선 철도만 건설중이다.

이에 따라 목포~부산 KTX 건설 구상이 구체화하면 보성~목포구간의 복선 전철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보성~목포구간의 전철화를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부산 KTX건설 구상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부산 구간 중 미개설 구간인 목포~보성이 전철화되면 무궁화호 기준으로 6시간 4분에서 2시간 4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U자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한반도 신경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공사중인 단선철도 조기 완공과 전철화사업 동시 추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돌봄 강화  
광주시는 시·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간단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르신자킴이 300여 명이 1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활동교육을 받은 후 7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 도의회 김기태 의원 제11대 의회 첫 번째 5분 발언 "도민 행복 위한 의회 역할에 총력" 호소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했다.

김기태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원구성인 완료된 만큼 지난 선거의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의장 후보로 나서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정겨운 의회', '먼저 손 내밀어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 신임 의장의 성공적인 임기 수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전남은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시급하게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도의회 의원 전체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전남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서 3차 결선 투표접전 끝에 2표(48%) 대 30표(52%), 2표의 간발의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결과와 관계없이 대응적인 차원에서 제11대 전남도의회 58명 전체 의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중기벤처부 광주전남청 "신청한번에 자금·기술 개발·수출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번에 '자금·기술개발·수출'까지 지원하는 '일관지원사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중기벤처부 광주전남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분야 9개사, 스마트공장 도입 분야 2개사, 수출역량 우수분야 4개사 등 총 15개사를 일관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통합해 자동화·디지털화를 구현한 공장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일관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중심 지원방식'의 정부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업이 정책자금, 기술개발, 수출 지원, 컨설팅 등 해당 사업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가능토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17개 분야로 이뤄진 개별사업 선정까지 거쳐야 했던 총 41단계 절차를 6단계로 대폭 간소화 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시 안전보안관 됐다...205명 발대

광주시는 18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안전보안관 205명과 재난안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보안관들을 받은 안전보안관들은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비롯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보안관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안전점검과 홍보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과 더불어 시민들 모두 안전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총장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광주 동구는 오는 9월14일까지 '제15회 추억의 총장축제'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행사장 안내와 미아보호, 질서·정결유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 등 2개 분야 300명이다.

자원봉사자는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안내와 홍보활동, 외국인 안내통역이 가능한 대학생,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동구자원봉사센터(동구청 별관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62-228-1365, 608-8923) 또는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www.1365.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서구, 서창 만드리 풍년제 세동마을서 재현

광주 서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20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서창 세동마을 들녘에서 개최한다.

만드리란 7월 백중(음력 7월 15일) 무렵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김매기를 재현하는 행사다.

오래 전 농주인은 봄부터 수고한 농사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 주민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드리 풍년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동안 서구는 서창, 월산, 중촌마을 등에서 구건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기 위해 각종 문화 사료들을 검증해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해왔다.

이날 행사는 발산마을에서 행사 장소까지 걸어오는 만드리 보존회원들의 행진과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의식행사가 치러진다.

## 남구, 노인 대상 건강쉼터 프로그램 효과

광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 건강쉼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더 푸른 건강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과 근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10주에 걸쳐 효덕동 광진경로당과 주월2동 봉주경로당, 주월1동 경남경로당 등 관내 7개 경로당에서 '더 푸른 건강쉼터'를 운영했다. 결과 인지 건강쉼터 이용 노인의 경우 시공간 실험력도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자기 효능감, 노인 우울분야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삶의 질 분야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건강쉼터 이용 노인들의 혈압과 혈당이 크게 낮아졌으며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체지방 지수 체력 측정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북구,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음식강좌 운영

광주 북구가 남도 향토음식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전통음식 강좌를 운영한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18년 하반기 전통음식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발효·저장음식 ▲자연주의 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부엌문화재 내림음식 과정 등 5개 분야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3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떡·한과 과정은 단호박 떡케이크, 오색꽃송편, 꽃매자 만드는 법에 대해, 향토음식과정은 떡갈비, 붕어조림 등 지역 토속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 강의한다.

## 광산구, 불법광고물 근절 나선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산구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천 건, 벽보 5만2천 건 등 총 46만 건 이상. 6·13지방선거 기간 다소 주춤했던 불법광고물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주말과 야간 게릴라식 부착 사례가 늘고 있어 광산구가 도시환경 개선 구민 안전 위협요소 제거 등 차원에서 본격 정비에 나선 것.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주간으로 정한 광산구는, 최근 적발된 200여개 업체에 지정게시대 이용과 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 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 업 진 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